

방통위, 추석 명절 맞아 온정의 손길 전달

- 아동복지시설에 방통위 직원들이 모은 위문품 전달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는 9월 6일(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청사 인근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 등을 구매하여 아동 복지시설(안양의 집)에 전달하였다.

이번 행사는 방통위 직원들이 그간 사랑나눔운동을 통해 모아온 성금으로 농축산물을 구매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복지시설 아동들이 훈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에서 진행되었다.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안양의 집을 방문하여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물품과 위문금을 전달하고, 안양의 집 원장 등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우리사회에 나눔과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운영지원과	책임자	과 장	박경주 (02-2110-1480)
		담당자	사무관	정세민 (02-2110-1350)